

1위
ABC 공인 유료 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7월 7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올여름 '여배우 원톱물' 안방 점령



김고은, 수지, 서현진(왼쪽부터)이 각각 원톱 주연으로 나선 드라마 '유미의 세포드', '안나', '왜 오수재인가'가 시청자를 사로잡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티빙·쿠방플레이·SBS

김고은·수지·서현진의 습격 그녀들이 뜨면 손이 저절로

'유미의 세포드' '안나' '오수재' 등 고공행진
TV 시청률·OTT 상위권...해외서도 인기

여성 원톱 주연의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점령했다. TV는 물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도 여성 캐릭터를 소재로 내세운 작품들이 각종 차트를 휩쓸며 '우먼파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현진이 주연한 SBS 금드라마 '왜 오수재인가'는 지난달 3일 첫 방송 후 경쟁작 소지섭 주연의 '닥터 로이어' 등을 누르고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최근 최고 시청률 10%(닐슨코리아)까지 치솟은 드라마는 현재 방송중인 각 방송사의 월화·수목드라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스트리밍 중인 웨이브에서도 많이 본 시리즈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처음 공개된 후 줄곧 OTT 전체 통합 차트(키노라이즈) 상위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대형 로망의 최연소 파트너변호사 역을 맡은 서현진의 연기는 물론 정확한 대사 전달력에 대한 시청자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SBS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서현진 디션 하이라이트 영상'은 한 달 만에 146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달 10일부터 티빙을 통해 공개한 김고은 주연의 오리지널 시리즈 '유미의 세포드' 시즌2는 4주 연속 유료가입기여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즌1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두 시즌 만에 역대 오리지널 콘텐츠 중 역대 유료가입기여자수 최고치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글로벌 OTT '라쿤텐 비키' 등을 통해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서비스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공개와 동시에 라쿤텐 비키 미주/유럽 부문에서 주간 톱5에 올랐으며 평점 역시 9.7점(10점 만점)을 유지 중이다.

수지의 첫 단독 주연작인 쿠방플레이 오리지널 '안나' 역시 화제다. 수지는 섬세한 표정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였고, 덕분에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인생작'이라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드라마도 쿠방플레이 내에서 많이 본 콘텐츠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24일 공개 직후 통합 OTT차트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다. 쿠방플레이 콘텐츠 중 역대 최고 순위다. 6일 기준 넷플릭스 화제작 '종이의 집: 공동경비구역 파르티'를 누르고 종합 3위에 랭크됐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박병호, 역대 최다 '통산 6번째 홈런왕' 도전

“올 홈런왕? 감흥없다”...왜?



올 시즌 KT 박병호의 홈런 페이스는 무시무시하다. 7년만의 50홈런 재발성도 기대된다. 그러나 홈런 수지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년간의 (부진했던) 성적 때문에 올해 홈런이 쌓이는 것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본인의 고백이다. 스포츠동아DB

5일 현재 홈런 27개...압도적 1위
"2년간 너무 부진해 지금 별충 중
답장 넘겨도 흥이 오래가지 않아"
최정 등 동료들 축하가 더 큰 힘



"그냥 감흥이 없어요(웃음)."

KT 위즈 박병호(36)는 5일까지 27개의 아치를 그려 2022시즌 압도적인 홈런 1위를 질주 중이다. 2위인 LG 트윈스 김현수(15개)와는 무려 12개나 차이난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기세다. '국민거포'로 각광받으며 4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했던 2012~2015년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괴력이다. 3개만 더 추가하면 2019년(33개) 이후 3년 만에 다시 30홈런 고지도 밟는다. 하지만 올해 박병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홈런 기록에 유독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쌓여가는 숫자에도 무덤덤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 홈런왕 타이틀을 되찾을 기회인데도 "큰 감흥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7일까지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와 원정경기를 치르는 박병호는 압도적인 페이스에 대해 "나도 신기하다. 홈런왕을 연속해서 차지했을 때도 이렇게 2위와 큰 차이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런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홈런이 계속 나온다는 건 내가 발휘해야 할 내 장점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지금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2019년 이후 3년만의 홈런왕 복귀가 유력하다. 그러나 박병호는 또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부진했던) 성적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 때도 해야 하는 기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그래서 올 시즌 홈런이 쉽게, 또 금방 머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홈런왕에 대한 생각 역시 같았다. 박병호는 "4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했을 땐 '홈런 타이틀을 지켜야 돼'라는 생각이 강했다. 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게 그때는 분명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어떠한 기록이든 1위를 해본 선수들은 그 압박을 분명 알 것"이라며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의 나는 지난 2년간의 (부진했던) 성적 때문에 올해 홈런이 쌓이는 것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병호가 홈런보다 반기는 것은 올해 그의 활약을 축하해주는 동료 선수들의 말 한마디다. 그는 "주변에서 오히려 축하를 더 많이 해준다. 최정(SSG 랜더스) 선수도 그랬고, 선수생활을 함께 오래한 다른 선수들도 그렇다. 고참으로서 힘들었던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참 고맙다"며 동료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광주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